

지역 소식통

김제시,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김제시는 오는 7일부터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적립금 30만원을 지원하여 저입금만 자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가입기간인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후 주택자금, 창업자금, 교육비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모집기간은 4월 24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코로나19 생계비 일자리 특별 지원 신청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여파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총 561명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생계비를 1인 하루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3개월의 공공기관 단기일지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자가격리자 전담관리제 강화

완주군, 해외입국·임시생활시설 퇴소자 대상 관리공무원 지정·매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가 중대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완주군이 해외입국자 및 임시생활시설 퇴소 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무원 전담관리제(制)'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2일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입국자 수송과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점검 방안,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철우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시생활시

설 입소도 의무화됐다"며 "완주 출신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입국자는 이달 1일부터 전북도의 수송체계 단일화 방침에 따라 공항버스로 단일화해 남원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의무 입소한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가능하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완주에 주소지를 둔 해외입국자가 남원 소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보호 앱을

통해 격리지역 이탈 여부와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한치의 허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미 각 부서, 읍면 직원 등 총 93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앱 설치도 완료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자가격리자 이탈지 위치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컴퓨터의 GIS기반 통합상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자가격리자의 격리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은 격리조치 위반 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인 요촌동 아이푸드 담장 옆 일대에 자율정화활동을 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쓰레기장에서 양심화단으로'

김제시 요촌동 택지골목, 쓰레기 수거하고 남천 나무 화단 조성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에서는 지난 1일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인 요촌동 아이푸드 담장 옆 일대에 자율정화활동을 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 봉사로 꼭 채워진 하루를 보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시 요촌동 택지골목과 아이푸드 사이 좁은 도로변 일대는 그동안 수시로 환경정비를 벌이고, 투기행위를 감시해도 무단 투기는 좀체 사라지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요촌동은 장전4 마을 주민, 주민자치위원과 합심하여 도로변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율정화활동을 벌이고 약 30여 미터에 이르는 도로변 구간에 남천 나무 화단을 조성하여 양심화단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화단 조성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 주민은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내 손으로 치우고 화단을 조성하니 더욱 애착이 가고, 깔끔한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작업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민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양심화단 설치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화단 식재 작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아동수당지급자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원사업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1억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40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2,788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에 맞춰 신청·지급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상 가정에 신청서를 동봉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별 신청 가능 일자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권 수령 줄서기 대기시간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신청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도 지정된 사람이 우편발송 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김제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은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즉시 받을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내(3개월 이내) 사용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1:1현장설명 신청

김제시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따른 1:1 현장설명을 '신용보증기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지구는 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19년 2월 2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구지정을 승인 받아 2019년 5월에 측량을 착수하였으며, 경제조정을 통해 20년 3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측량결과를 통지하고 4월 중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현장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통지로 인해 경계확인을 원하는 민원상담 및 접수가 쇄도함에 따라 김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민원처리방안으로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는 1:1 현장설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현장설명회는 김제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와 임시경계점표지 확인, 측량결과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접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윤재호 민원지적과장은 "1:1 현장설



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장 최접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로 민원 최소화 및 행정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재래시장 위로 나선 완주 새마을부녀회

완주군 새마을부녀회가 재래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완주군은 새마을부녀회 강귀자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1일 봉동 생강골 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차원의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부녀회원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쳐가는 시장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희망 손수건을 제작해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는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조금만 힘내서 이



위기를 꼭 극복하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녀회원들은 생강골 시장의 봄나물과 제철과일을 구입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